

시청자의 마음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동영상 분석 시스템 개발한 멀티서베이

도전정신으로 대표되는 벤처기업에 젊음만큼 잘 어울리는 단어가 또 있을까.
패기 넘치는 젊음으로 차근차근 벤처의 길을 밟아가는
경희대학교 학생벤처 멀티서베이(대표 송석규)를 찾아가 본다.



▶ 강의실보다 사무실이 더 익숙하다는 멀티서베이 멤버들. 오른쪽부터 송석규 대표, 김낙호, 최용섭

Q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A 어느 날 TV를 보다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치인의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시청자는 이것을 보며 어떤 느낌을 받을까 궁금해했습니다. 지역과 연령 그리고 성별에 따라 호감도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개발하게 된 것이 지금 저희의 아이팀인 '서베이 익스프레스'입니다. 동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멀티미디어 정보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을 바로 확인시켜주는 시스템이죠. 현재 저희 회사는 서베이 익스프레스를 주축으로 실시간 동영상 분석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과 극복요인은 무엇입니까?

A 자금과 노하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열정과 패기는 충분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수많은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04 코센 CEO아카데미' 수료를 시작으로 수차례 워크숍과 세미나에 참가하면서 사업 전반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를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경진대회에 참가한 경력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경력이 늘수록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 쌓여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지요.

Q 멀티서베이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A 멀티서베이는 실시간 동영상 분석시스템이라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출원과 시드머니 확보, 전문 연구진 확충,

조직 구성, 제휴사 확보, 사전 영업활동 등의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가고 있으며 상당부분 완료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디어가 상품화되어 탄생하기까지의 절차와 과정을 정석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의 강점입니다.

Q 창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A 청년 벤처인이란 무식해서 용감한 돈키호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조직·운영 과정에서 글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며 지금까지 걸어왔으니까요. 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확신으로 신나게 일하는 사람이 되길 당부합니다. 또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템의 개발 이외에도 조직 관리, 생산관리, 재무관리 등 많은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서는 절대로 창업할 수 없습니다.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능력 있는 동지를 만나는 것이 창업의 시작입니다. 창업을 준비한다면 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A 모든 역경과 제약조건을 던고, 2007년 대선방송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이겠습니다. 또한 동영상 분석 시스템의 세계표준을 선점하여 국내 IT원천기술 확보에도 한몫을 하겠습니다.